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10월 11일 연중 제28 주일

오늘 차가 너무 막혀서.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돼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싸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자기합리화의 기술자들이다. 오죽하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까지 생겨났을까? 인간의 변명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한다. 아담은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고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라며 아내와 하느님을 동시에 탓했고, 하와는 “뱀이 저를 꾀어내어 제가 따 먹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초의 인간들부터 이미 '남 탓'과 '핑계'의 고수였던 셈이다.

오늘 혼인 잔치의 비유는 지난 두 주일 복음 말씀 즉, 두 아들의 비유(마태 21,28-32)와 포도원의 소작인 비유(마태 21,33-45)의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는 스스로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며 하느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대와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는 주님의 날을 혼인 잔치에 비유한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25,6) 이렇게 주님의 날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영원히 없애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날에는 사람들이 "보라, 이 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25,9)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오늘 복음 역시 주님의 날을 혼인 잔치에 비유한다. 마태오는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의 날, 곧 혼인 잔치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선포한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준비하신 뒤 사람들을 초대하셨다고 한다. 여기서 혼인 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신부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이다. 교회는 새 계약으로 탄생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먹게 하고, 풍성한 포도주를 마시도록 해 주신다.

하지만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열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놓고’ 초대를 건넸건만,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하느님은 당신의 축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신다.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종들은 거리로 나가 악한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9-10) 그렇게 해서 잔칫상은 온갖 사람들로 가득 찬다. 그냥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인생 최대의 잔치상을 만난 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본모습이다. 교회는 성인군자들만 모인 고상한 클럽이 아니라, 길거리 스카우트된 온갖 종류의 어중이떠중이들의 잔치판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더니, 다짜고짜 종을 시켜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버린다. 아니, 갑자기 길거리 캐스팅이 되었는데, 예복이 어디 있을까?

혼인 예복은 바로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갈라 3,27)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것이다. (갈라 4,22-24)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거저 초대해 주셨는데, 잔치판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욕심, 내 옛 습관이라는 꼬질꼬질한 옷을 고집하며 “내가 잔치판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라고 한다면 당장 쫓겨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듯, 주님의 잔치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은혜의 자리이다. 우리는 이미 그 잔치에 초대받은 '**아무나**'들이다. 그럼에도 “바빠서”, “피곤해서”, “저 사람 때문에” 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시는가? 다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예복 한 벌 차려 입고, 뻔뻔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서 잡혀 온 또 다른 **아무나**와 함께 잔치상을 즐기자.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10/ 11	현재영(바오로)	이정명(세실리아)	현동숙(소피아)		박유자(요안나)
	황정순(크리스틴)	심묘현(안젤라)	박만석(마뉴엘)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26 년 10/18	이신애(율리아나)	김주영(이냐시오)	백진주(에밀리아나)		박춘자(아가다)
	김경숙(클로틸다)	표민규(아킬레오)	표혜진(레지나)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공 동 체 소 식

◎ Generation to Generation Campaign

G to G는 계속됩니다. 약정에 참여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본당에 납부하실 분은 교구청의 납부안내서의 Donor ID#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아직 약정하지 않으신 교우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모임일정 안내

▶4 구역 1 반: 10 월 17 일(토) 오후 6 시 유용(정약종)댁
7401 Lamon ave, Skokie ☎847)372-2697
▶4 구역 5 반: 10 월 17 일(토) 오후 2 시 정 세실리아댁
▶플라스키아파트: 10 월 17 일(토) 오전 11 시-신관 1 호
▶8 구역 1 반: 10 월 27 일(화) 오후 6 시 허강백 형제댁
1297 BIRCHBARK TR., CAROL STREAM, IL 60188
▶8구역 2반: 10월16일(금)오후 4시 김종루 형제댁
20806 N. Elizabeth Ave. Lincolnshire, IL 60069

◎꼬미시움

▶일시: 10 월 11 일(일) 오후 12 시 30 분 신관 1 호

◎선교바자회 (아프리카 돕기)안내

전교주일을 맞아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라 아이호시(Ihosy)지역을 후원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10 월 18 일(일) 점심이 준비됩니다.

세일메뉴: 겉절이, 양념게장, 무우말랭이무침, 고추장, 새우젓, 자반 고등어, 북어채무침, 무우짱아찌, 녹두빈대떡, 비빔밥용 나물들, 기타

◎김두진(바오로)신부님의 영명축일 ‘영적 꽃다발’

10 월 19 일 십자가 성 바오로의 영명일을 맞으시는 본당 주임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꽃다발 기도용지는 10 월 13 일(화)까지 현관에 비치된 바구니에 넣어주십시오.

◎성경 필사

성탄 맞이 성경필사를 합니다. 신, 구약 성경 중 읽고, 쓰며, 묵상하고 싶은 말씀 한권을 선택, 필사해서 12 월 13 일까지 제출하시면 사랑의 구유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2027 년 부활세례반 예비자 모집 안내 - 10 월까지

▶성인 교리시간: 주일 오전 9 시 30 분
▶청년 교리시간: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모니카회

고 연(요한)형제의 92 세 생신을 축하합니다
친교실에 점심식사가 준비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장기섭(토마스), 이대수(안토니오), 김홍기(스테파노), 김클로틸다, 정유하(시메온), 탐 박(토마스), 박종헌(야고보), 이향례(자넷), 김명수(토마스), 서영일(야고보), 김홍숙(헬레나), 윤영란(도로테아), 강젬마, 유성희(스티브), 박만석(마뉴엘), 이춘재(엘리사벳), 김동진(가롤로), 오명희(마리아), 박마리아, 여재동(베드로), 최판연(젬마), 김영훈(미카엘), 주영재(요한), 김종루(라우렌시오), 임평수(스테파노), 임형섭(에드워드), 김용섭(베드로), 김태수(토마스), 이순영(젬마), 정인선(요한), 정행자(세실리아), 한호자(모니카), 전진숙(아네스), 김영란(로사), 김수산(카리타스), 민광홍(미카엘), 김정욱(에스더), 전행자(루갈다), 이승자(데오도라), 이옥희(엘리사벳), 김영일(미카엘), 김정우(바오로), 조갑묵(스테파노), 김영덕(그레고리오), 현재영(바오로)

▪감사헌금: 민광홍(미카엘), 조카니(캐서린)

○교무금	$ 6,090.00	○주일헌금	$ 1,703.00
○감사헌금	$ 230.00	○성물방입금	$ 69.00
○토요미사	$ 96.00		

『 2026년 10월 11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김정자(카타리나)가정, 유명주(마가렛), 황명훈, 황영희가정, 고연(요한), 김정자(엘리사벳)가정, 앤디킴(안드레아), 엄광식(토마스), 정명례(소피아), 이동자(로렌시아), 심묘현(안젤라)

■ 연미사

이긍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꿀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백승재(야고보),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김진봉(베드로), 조문기(샤스땅야고보), 주영선(소피아), 이동준(베드로), 김성애(마리안나), 베니지(베네딕토), 허준(요셉), 허순덕(마리아), 허순이(마멜다), 김종덕(베드로), 이선애(마틸다), 김성애(방지가), 김영철(요셉), 불쌍한 연옥영혼을 위하여

10월 13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꿀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정정숙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승재(야고보
백용길(그레고리오),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연미사)**

10월 13일(수) ~ 10월 17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연미사)**

10월 17일(토): 허상윤(안드레아), 서정섭(안나) **(연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파트너스 부동산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배 페인팅
배 홍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라저스팍 꽃집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정통 한정식 전문점
반 포 정
전골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eauty & Personal Care
Best Kit
애터미
atom美
최 젬마
(847) 414-0863

Michael Zyung
B&W
BAIRD & WARNER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냉면이라면 조선옥 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백이도 역시
조선옥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자동차정비와 바디에 관한모든것
TAXI & AUTO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go, IL 60614
312.929.9069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젬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 코스타리카 (6일): 5월 20일, 9월 2일 출발
•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지순례: 9월 5일 출발
• 산티아고 도보 순례: 9월 5일 출발
• 서유럽 4 개국 (11일): 9월 8일 출발
• 멕시코 과달루페 (5일): 9월 28일 출발
• 베트남, 일본, 제주, 남해 투어 (16박 17일): 10월 15일 출발
• 동유럽 발칸 7 개국 (14일): 10월 15일 출발
• 이집트 요르단 (13일): 11월 13일 출발
• 항공권, 크루즈, APPLE VACATION
내가 원하는 일정 나만의 맞춤 여행을 알려드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한국장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 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Sr. 이 정희(마틸다)	**C (773) 941-2648**

2026 년 10 월 11 일 연중 제 28 주일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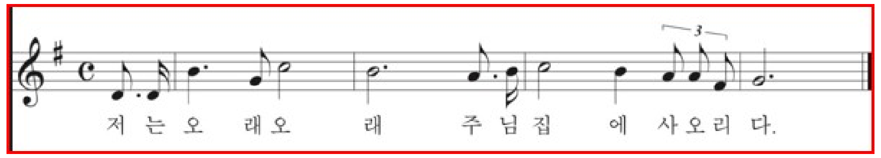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이사야서. 25,6-10ㄱ

◉**화답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4,12-14.19-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복음** 마태오 22,1-14

◉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34	봉헌성가	240
	성체성가	169	파견성가	400